교육과 치료로서의 문학행위에 관한 질적 연구*

-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

임춘택**

〈차 례〉

1. 서론
2.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
3.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 치료로서의 문학행위 차원에서,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모임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 있다. 모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의 양육과정에서 생긴 상처 문제를 주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연구는 이들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부터 결혼 직전까지도 생부로부터 지속적인 상처(물리적, 정신적 폭력)를 받았고 결혼생활과 함께 이를 꾸준히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한 여성의 사례에 집중하였다. 연구는 크게, '은유적 이야기 metaphoric story'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고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

* 이 연구결과물은 2014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해당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사례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연구를 통하여 문제의 이야기를 지닌 한 개인 삶의 정황과 생애 배경 그리고 극복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연구 참여자에 맞춘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 개발과 치료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치료 대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 개발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창작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야기 생산과 분석 기술을 배우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모임 이후에 있을 본인 자녀들을 위한 은유적 이야기 개발과 치료 모임을 진행할 것을 목표를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과 예술치료의 범주 안에 있는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이를 통한 치료가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국내 상황에서 한 사례 연구로서의 소소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문학, 은유,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아버지의 폭력, 글쓰기, 질적 연구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다.’, ‘정신이 치료되었다.’는 말에는 무수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함의가 있다. 유사한 삶은 있어도 똑같은 삶이란 존재하지 않듯이 동일한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 해결에도 특정 이론과 방법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심리학자 ‘폴 C. 비츠 Paul C. Vitz’는 ‘심리치

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난해하고도, 근본적이고, 상대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현대 심리학과 심리치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현대 심리학과 심리치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일상 삶의 다양성을 배제한 채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그들만이 만들어 낸 '과학적', '의학적' 접근만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심각한 불균형에 빠져있다고 보았다.[1] 정신과 전문의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모건 스캇 펙 Morgan Scott Peck'도 현대의 정신과 진료는 과도하게 약물에 의존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하고 치료에 있어서의 핵심은 내담자에 대한 지지와 사랑 그리고 훈육과 훈계를 통한 인격 성장과 영적 성장에 있음을 누차 강조하였다.[2] 상담심리학과 정신건강의학 치료의 대가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 치료는 병원과 상담실 같은 어떤 특정 장소와 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삶 전체'라는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상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와 같은 '은유적 이야기 metaphoric

---

1) 폴 C. 비츠(Paul C. Vitz) 저, 장혜영 옮김, 『신이 된 심리학 *Psychology as Religion*』,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pp. 82-84. 비츠는 뉴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 넘게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이 학과의 명예교수이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심리치료를 이상적인 형태로조차 과학과 의학의 형태로 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비츠는 여러 학자와 심리치료사의 말을 인용하여 심리치료는 설득의 과정이자 치료사에 대한 환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어느 이론이든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능수능란하게 심리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치료사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따뜻하고 호의적인 지지가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단, 물론 그도 공포증이나 공황발작 등과 같은 치료에 있어서는 이 같은 '대화방식'보다는 인지행동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2) 모건 스캇 펙(Morgan Scott Peck) 지음, 윤종석 옮김,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3. / 모건 스캇 펙(Morgan Scott Peck) 지음, 최미양 옮김,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 서울, 율리시즈, 2011.

story'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치료 모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병원이나 상담실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문학을 즐기고 문학행위(독서, 사고, 창작 등)를 통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병원이나 상담실에 왕래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고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우리나라 사회문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마음 치료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즉,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내담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그리고 이러한 한국사회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항 resistance'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3] 그럼으로 이러한 다양한 예술치료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확대 활성화됨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심리학 치료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태도문화[4]에 대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학이라는 언어예술에 대한 교육과 이를 통한 치료 모임은 마음 문제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5] 치료로의 길을 무리 없이 열어주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은유적 이야기가 이러한 일련의 현상적인 차원에서의 장점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은유와 이야기 안에는 본질적으로 그 기능적 작용 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상력과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 삶은 사실적 현실과 예술적 언어 간의 상호 영향을 이룬다는 점에서, 은유적 이야기 치료 또한 동일하게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시적 세계와 사실적 현실 간의 상호 작용(영향, 보완, 변형, 대체 등)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현실과 은유로 형상화한

---

3) Kopp, Richard: *Metaphor Therapy - Using Client Generated Metaphors in Psychotherapy*, New York, Routledge, 1995, p. ix.

4) 마음의 병은 최대한 감추고 덮어두려는 인식, 치료 사실이 당사자와 가정 외에는 그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 등.

5)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에 속한다.

문학 세계가 인간 삶과의 불가분 관계, 상호 침투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은유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문학행위 또한 치료적 기능은 물론이고 문학의 주요 기능인 교육적·심미적 효과까지도 얻게 하는 방법이자 장점을 갖는다.[6] 그래서 인간 마음의 문제는 문학행위의 일환인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라는 인문·예술 행위 영역 안에서 치료라는 거부감이 우회·경감된 상태에서 삶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통해 진지하면서도 흥미 있게 다루어져서 해소·해결될 수 있다.

1.2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물론 변수도 성장과정과 성장 이후에 충분히 작용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영향이라는 말이 무색할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와 양육방식이 어떠했는지가 자녀 삶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것은 개개인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이 된다.[7] 이 절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와 관련한 문학 세계와 현실 세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이 문제의 해결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① **문학 세계**: 인간 삶과 깊은 관련을 맺는 문학에서도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일그러진 관계 상황을 독자

---

6) Weißenborn, Theodor: Außenseiter - eine Kategorie der Verdrängung Zur sozialen Aufgabe einer Literatur, die sich als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 versucht, in: Petzolt, Hilarion G.·Orth, Ilse(Hgg.): *Poesie und Therapie - Über die Heilkraft der Sprache*, Bielefeld, Sirius, 2009, S. 159-163.

7) 우르술라 누버(Ursula Nuber) 지음, 김하락 옮김, 『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한다. *Lass die Kindheit hinter dir - Das Leben endlich selbst gestalten*』, 서울, RHK, 2010.

들은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친부로부터의 폭력과 시달림 상황에 연관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학텍스트로는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의 『변신 *Die Verwandling*』을 들 수 있다. 카프카의 『변신』은 주인공 '잠자 Samsa' 씨가 어느 날 일어나보니 어떤 이유에서 인지 해충으로 변해버렸다는 기괴한 비현실적인 현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벌레로 변한 주인공 잠자 씨에게 그의 아버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매정한 대처방법으로, 벌레로 변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무자비한 아버지 상을 대변하는 인물이 된다. 가계에 비중 있는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강자로서의 아들이 어느 날 아무짝에 쓸모없는 해충으로 변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고 역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자로서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폭력과 방치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8] 『변신』은 현실에 비해 극단적인 사건 전개라 할 수 있겠으나 종종 이와 유사하거나 더한 일들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즉 카프카의 『변신』이 비현실에서 현실의 경계를 종종 침범하여 우리주변 가까이에서 사건을 일으킨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9] 우리는 『변신』 텍스트를 통해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력성이 이 텍스트만의 침울한 인물과 배경 묘사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사건 배경이 더해져 그의 아들 잠자 씨에게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는지를 불편한 심적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현실 세계**: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폭력성 문제와 해결방법에

---

8) Kafka, Franz: *Die Verwandlung*, Stuttgart, Reclam(c 1912), 1995.

9) 본 연구의 모임에서 연구 참여자의 진술들 가운데는 이처럼 문학과 현실 간의 실재성의 경계 구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은 수위의 정도는 『변신』보다 조금 약하더라도 모임 참여자 모두에게 '과연 연구 참여자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난처하고 복잡한 문제들의 발생이 실재란 말인가?'라는 반문을 하게 만들었다.

관한 실제 현실세계의 사례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관한 논문에서 이 둘의 상관관계는 존재하며 가정폭력의 최대 피해자는 이를 능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 자녀들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10] 아버지의 애정적·자율적 태도가 아동이 또래와 상호협동적 관계 및 리더십 발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11] 아버지의 높은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정도가 장애아동의 높은 사회성숙도를 나타내며,[12] 과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성인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3] 등에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형성이 어떠했는지가 자녀의 정서발달, 대인관계형성, 사회적 역할 수행에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폭력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 우울증, 죄책감, 원망, 분노 등과 같은 심적 피해 증상의 원인이 된다. 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겪은 자녀들은 분노, 무력감,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를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쌓이며 또래 아이들에게 그대로 자신이 겪은 감정을 표출하는 문제를 일으킨다.[14]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10) 김현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초등상담교육전공, 2013.

11) 김선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놀이성과 아동의 리더십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심리치료학과 놀이치료전공, 2013.

12) 김상우,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정도가 장애아동의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2012.

13) 김현지, 「과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성인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정신전문전공, 2012.

14) 원희랑·서보남, 「가정폭력쉼터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있는 남자 자녀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크고, 여자 자녀의 경우 폭력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폭력이 제2의 피해자를 낳게 하는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다.[15]

③ **문제 해결의 중요성**: 아버지가 자녀에게 폭력과 같은 그릇된 행동을 범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접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 해결은 당사자들 차원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에서 우리사회와 그 이웃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바람을 이루기 위한 작은 실천 차원에서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라는 형태로 모임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사회 일원이기에 내가 속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라는 직업적 역량을 도구로 삼아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자는 논문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를 활용한 모임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와 모임의 주제 및 방법, 논문기술 등에서 국내 다른 연구와 다소 간의 차이를 나게 하였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이 자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성장기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사례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연구』 제17권 4호, 2010, pp. 879-899.

15) 서경현 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정폭력이 대학생의 연인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권 1호, 2007, pp. 153-170.

1.3 논문기술방식

본 연구의 기술방식은 문헌 자료 검토를 통한 설명적 분석적 글쓰기와 모임 사례를 기술하기 위한 질적 글쓰기,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논문 주제와 관련한 은유, 은유적 이야기, 치료 등의 이론적 배경 부분은 이와 관련한 문헌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기술하였고 아버지의 양육태도 부분 또한 관련 문학텍스트와 이전 연구 문헌을 고찰하여 아버지의 자녀 양육의 중요성과 폭력 문제 등을 기술하였다. 모임 사례와 관련한 3장과 4장은 내러티브 글쓰기 방식과 문학적 글쓰기(시적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모임 구성원들은 1회 모임을 3시간 정도의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은유적 이야기 개발 방법에 관한 학습과 창작 작업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치료뿐 아니라 부모양육태도라는 주제에 관한 각자의 경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만큼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구성원들 간에 많이 오고갔고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모임에서 진술한 대화를 연구책임자가 수집, 분석, 해석하여 내러티브 기술 방법으로 '3장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을 작성하였다.[16]

모임이 이야기 창작중심의 문학 교육과 치료로 구성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논문의 일부분을 문학적 표현으로 기술하였다. 그 이유는 논문 글쓰기에서도 사실적이고 설명식의 글쓰기 기술보다는 문학적 표현을 활용한 기술이 연구논문에서도 심미적 효과를 낼 수 있고, 연구주제에 대한 집중을 도와 논문 독자에게 내용의

16) Clandinn, D. Jean · Connelly, F. Michael: *Narrative Inquiry -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2004.

전달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본 연구의 주제와 성격에도 어울리기 때문이다. 모임에서 구성원들이 치료 목적으로 개발한 은유적 이야기 외에 연구 참여자 소개의 일부분과 결론의 일부를 연구책임자와 연구 참여자가 창작한 시적 텍스트로 표현하였다.[17]

2.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

2.1 은유적 이야기 생산과 활용

은유적 이야기를 포함한 은유 치료는 은유 생산과 그 활용 주체에 따라서 내담자가 생산한 은유 활용, 치료자가 생산한 은유 활용, 이 둘의 공동 생산과 활용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내담자가 만든 은유(client generated metaphor)를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심리학 분야의 상담심리치료에서보다는 내담자의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예술치료(은유치료를 포함하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이 방법은 내담자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심정과 문제 상황을 은유로 표현할 때 이를 치료자가 치료에 활용하는 방식이다.[18] "이 직장이 종착역

17) Sullivan, M. A.: Voices Inside Schools – Notes from a Marine Biologist's Daughter: On the Art and Science of Atten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70-2, 2000, pp. 211-227. / 김영천·이희용, 「질적연구에서의 글쓰기 – 문학적 표현양식들의 이해」,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제56집 3호, 2008, pp. 187-222.

18) Dielman, C.·Stevens, K.·Lopez, F.: The Strategic Use of Symptoms as Metaphors in Family Therapy: Some Case Illustration, Journal of Strategic & Systemic Therapies 3, 1984, pp. 29-34. / Kopp, Richard: An Empty Sadness – Exploring and Transforming Client Generated Metaphors, Ibid., 2007, pp. 30-43. / Legowski, Terasa·Brownlee, Keith: Working with Metaphor in Narrative Therapy,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12-1,

인줄 알았어요.", "나는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어요." 등과 같이 내담자가 말한 자신의 처지와 심정에 관한 은유적 표현을 치료자가 내담자 치료 상황에 맞춰서 변형, 대체, 의미부여 등을 시도하여 내담자에게 억압된 감정표출, 희망적인 결말로의 유도 등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둘째, 치료자가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고려하여 치료 목적의 은유와 치료 절차를 고안하는 방법이다.[19] 이 방법은 치료자의 은유치료 경험이 풍부하여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은유 생산과 적용을 능숙하게 할 수 있거나, 치료 과정으로의 내담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를 위해 생산한 치료자의 은유적 표현 또는 은유적 이야기가 어떠한지와 이를 중심으로 치료자의 치료 방식이 내담자에 맞춰서 적절하게 실행되는가에 있다. 이때 치료자가 고안한 은유적 표현이나 은유적 이야기[20]뿐만 아니라 타 치료자나 작가의 작품 등의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21]

셋째, 내담자와 치료자가 함께 공동으로 은유를 개발하고 이야기를 구성하여 협력적으로 치료 과정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다.[22] 이 방

2001, pp. 19- 28.

19) Carmichael, Karla D.: Metaphorical Intervention in Alcohol Dependency,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18-4, 2000, pp. 111-118. / Yapko, Michael D.: The case of carol - Empowering decision-making through metaphor and hypnosis, in: Burns, George W.(Ed), Ibid., 2007, pp. 67-78.

20) Smit, Gregory: Trekking to Happiness-No Sherpa Required - A Utilization Approach to Transcending an Abusive Relationship, in: Burns, George W.(Ed), Ibid., 2007, pp. 89-99.

21) Wilkinson, L V. · Buboltz, W.: Anecdotes, Metaphors, and Stories - A Clinical Technique for Group Therapy. Journal of Clinical Activities, Assignments and Handouts in Psychotherapy practice Vol. 1-2, 2001, pp. 43-57.

법으로 치료자는 혼자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은유적 표현과 은유적 이야기를 생산하고 치료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만 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 치료는 문제 해결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와 의지가 어떠한지가 치료 효과의 결과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방법보다는 이 둘의 장점을 살린 협력적 은유치료 방법이 이상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정 내담자 집단에 익숙한 은유를 사전에 설정하고 치료 목적으로 개발한 치료 사례가 있다. 이 연구는 축구 종주국 영국에서 축구가 일상의 삶과 자라온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영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사례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각종 심리, 예술 등의 치료가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집단치료의 경우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특수하면서도 흥미 있는 사례에 속한다. 이 치료 방법은 치료자가 만든 은유를 활용하는 두 번째 치료 방식에 해당하면서, 치료자가 치료 프로그램 실행 이전에 특정 내담자 집단을 목표로 하여 이들을 위한 은유군을 개발하는 것이 특이점이다.[23]

본 연구는 은유 생산과 치료에 있어서 앞의 세 가지 유형을 다소 변형한 상호 협동 방식을 취하였다.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 생산을 위해 연구책임자, 동료 연구 참여자, 해당 연구 참여자 참여까지 세 주체에 의한 협동 작업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모임을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로 설정하여 연구책임자뿐만 아

22) McNeilly, Robert: Night, Night, Sleep Tight, Don't Let the Sharks Bite: "What's Missing?" in Metaphors, in: Burns, George W.(Ed), Ibid., 2007, pp. 190-198. / Erickson-Klein, Roxanna: The Metaphor That Sang Its Own Sad Song: Therapeutic Storytelling in Pediatric Hospice Care, in: Burns, George W.(Ed), Ibid., 2007, pp. 199-209.

23) Spandler, Helen · Roy, Alastair · Mckeown, Mick: Using Football Metaphor to Engage Men in Therapeutic Support,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 Psychotherapeutic Approaches in Health, Welfare and the Community 28-2, 2013, pp. 229-245.

니라 연구 참여자들도 은유적 이야기를 생산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모임 목적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치료만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은유적 이야기를 본인과 타인에게 실행할 수 있기 위한 교육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이 과정은 본 모임 이후에 진행할 자녀 대상 은유적 이야기 치료에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 자녀를 위한 은유적 이야기 생산과 치료 실행자가 되기 위한 사전 교육의 장 역할을 한다.[24] 무엇보다도 연구 참여자들이 은유적 이야기 생산과 실행의 주체가 되어 보는 것은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을 넘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럼으로 이러한 모임 형태는 연구 참여자들이 모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맞닥뜨릴 문제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해결 전략을 세우고, 심상적인 사고 능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2.2 은유적 이야기 치료 방법

문학어나 일상어 표현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표현하는 '은유 metaphor'는 형태적으로나 각각의 의미로나 상호 이질적인 성질에 놓여 있어서 이 둘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둘은 매우 흡사하거나 동일성으로 맺어져 있다.[25] 그래서 독자 또는 청자는 은유와 은유적 이야기에 작가와 화자가 장치한 은유 속의 숨은 의미를 찾아가는 의식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에 대한 의미 구현 작업은 해당 텍스트의 상황 묘사나 사건 전개로 이루어진 이야기의 맥락에서 그 의

24) 조지 W. 번즈(George W. Burns) 지음, 김춘경 옮김, 『마음을 치유하는 101가지 이야기 *101 Healing Stories for Kids and Teens - Using Metaphors in Therapy*』, 서울, 학지사, 2009, pp. 494-496.

25) 권영민, 『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2009, p. 112.

미를 확인하여 두 개체 간의 동일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이 특정 독자와 청자를 대상으로 창작한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는 마치 긴 미끄럼틀을 타고 정해진 과정과 특정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선사한다. 독자와 청자는 그녀(그)의 '문제'를 목표로 고안한 은유라는 보완재를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과 결과를 접한다. 즉, 은유적 이야기(치료)에서 독자 또는 청자는 원관념에 보조관념을 정확하게 끼워 맞추거나, 자유로운 연상 과정에서 본인과 유사한 것 같지만 내러티브 양식 속 가상의 인물, 사건, 상황과 마주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와 관련하여 '폴 리쾨르 Paul Ricoeur'도 이야기 정체성 개념을 통해 이야기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언급함으로써 과거의 이야기, 상처 난 이야기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리쾨르는 이야기 정체성이 확고부동하고 완벽한 정체성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항하여 여러 가지 줄거리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나아가 한 삶에 대해 상반되는 줄거리를 짜는 것도 언제나 가능하고, 나아가 한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줄거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26] 또한 은유적 이야기 치료는 결말 중심, 해결 중심 치료라는 특징을 지녔다는 점에서 사람의 속성이나 내면을 문제로 삼고 다루기보다는 문제의 이야기 외에 "보다 많은 선택을 허용하는 이야기의 생성과 과거에 묻힌 많은 가능성을 지닌 이야기로의 연결을 통해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이야기"를 선사하는 것에 집중한다.[27] 그럼으로 은유적 이야기 치료의 목표는 내담자에게 있었던 문제의 길이자 거짓의 길 그리고 원래 없던 길 그래서 잘못 들어선 길에서 벗어나, 진정한 길, 회복의 길, 원래 가야 할 길 그래서 희망의 길로 접어드는 경

26) 김선하, 『리쾨르의 주체와 이야기』,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7, p. 262.
27) 고미영,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서울, 청목출판사, 2004, p. 115.

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내담자가 경험했고 지니고 있는 문제의 이야기는 내담자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역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 과정은 삶의 아픈 경험을 모임에서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정체된 문제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발전적인 이야기로 내담자를 지지하여 문제의 이야기를 건강한 이야기로 대체하는 것이다.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 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는 행위 그리고 그 대화 상황이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는 치료 효과와 치료 성패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전제 조건은 치료 모임에서 내담자 자신이 이해받고 수용되며 정서적인 안정과 믿음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가능하다. 은유적 이야기 치료과정에서는 모임 구성원들 간에 동일한 주제의 문제로 형성된 동질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라포르 rapport'를 유지해야 하며, 치료자(이야기의 화자)와 내담자(이야기의 청자) 간에 은유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이 성공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 서사 담화 차원의 이야기 치료에서 '디스코스 discours' 개념과 원리는 실제 이야기 치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이룬다.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대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 말투, 정조, 시간, 공간, 심리적 거리, 관점, 입장과 같은 요소들은 치료 목적으로 내담자를 위해 고안한 은유적 이야기의 치료 실행 상황에 맞춰 유동적이고 기민하게 적용되어야 할 요소들이다.[28]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라면 모임의 디스코스 상황과 전체 흐름이 은유적 이야기의

28) 이민용, 「서사 담화와 정신분석학 기반의 내러티브 치료」, 『독일문학』 제125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13, pp. 170-171.

내용 못지않게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 변형, 작용되어야만 한다.[29]

2.3 모임 상황으로의 적용

연구 참여자의 정체된 이야기, 문제의 이야기, 즉 연구 참여자의 아버지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받았고, 결혼하여 더 이상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현재도 '친정 문제'로 남아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이야기 창작과 치료실행이 연구 참여자의 교육과 치료 목적으로 수차례 진행되었다. 물론 모임 회기에서의 대화는 은유적 이야기로만 이루어진 것도 이를 만들기 위한 교육시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사실적인 성격의 발설을 통해(때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문제를 쌓아 놓지 않고 연구 참여자와 그의 문제를 수용할 만큼의 라포르가 형성된 소집단에서 문제 발설을 통한 해소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동료들과 고민하는 과정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은유적 이야기 치료 상황은 물론이고 모임 전체 시간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궁극적으로 치료 지향적인 대화)는 앞서 언급한 디스코스 원리와 방법을 필요로 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은유적 이야기 치료 방법과 상담 대화 방식에 대한 학습을 번즈의 『마음을 치유하는 101 가지 이야기』(2009)와 『이야기로 치유하기 - 치료적 은유 활용 사례집』(2012) 그리고 이장호·금명자의 『상담연습교본(3판)』(2012) 각각에서 관련 해당 부분으로 진행하였다.

---

29) 조지 W. 번즈(George W. Burns) 지음, 같은 책, 2009, pp. 70-82.

3.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

3.1 모임 및 연구 참여자 소개

① **모임 개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의 구성원은 연구책임자와 연구 참여자 3인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책임자가 치료자이고 연구 참여자가 내담자라기보다는 연구책임자는 전체 모임을 계획, 일정 조정, 모임 인도, 설문 조사,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교육 자료 제공, 치료 방향성 제시, 치료 코칭 등을 맡았고, 이에 맞춰 연구 참여자 3인은 모임을 참석하고 교육을 받고, 치료의 수혜자이자 치료의 주체자이고 모임 전반과 이야기 창작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맡았다. 모임은 연구 참여자 모두가 본인 부모님의 양육방식과 태도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주제로 진행됐다. 나아가 모임 이후에 연구 참여자 자녀에 대한 본인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소개**: 연구책임자의 제안과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모아서 연구 참여자의 부모양육태도와 부모로서의 자신의 양육문제를 모임의 주제로 결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3인 각각의 구체적인 문제는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어머니로부터의 상처', '칭찬에 인색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처'로 나뉘어져 부모양육태도문제 범위에서도 상이한 문제근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3인의 연구 참여자 전부를 제시하기에는 지면의 한계와 연구주제의 분산 문제를 감안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 1인의 사례에 집중하였다.

③ **본 연구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 소개**: 연구 참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결혼 직전까지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크고 작은 물리적 폭력을 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를 많이 극복하여 한 가정에서 어머니이자 아내가 되었고 이뿐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그녀도 주변 사람들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모임 기간 동안에도 그녀의 가정과 그녀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이런 문제들에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고 그 과정 또한 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대학을 졸업했고 지적 욕구가 강하며 대인 관계에서도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와 대화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도 아이에게 엄마는 종종 '헐크'로 변하는 사람이었고, 아내에게 남편은 '평화로움'이지만 남편에게 아내는 언제나 '긴장상태'라는 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와 관련한 문학, 독서, 은유, 이야기, 치료 등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본인의 독서와 자녀들의 독서 교육에 매우 관심이 높아서 지역 도서관에 매주 빠짐없이 다닐 정도로 독서열이 강했다. 아래 시는 연구책임자가 치료 과정에서 생긴 그녀에 대한 특징과 마음을 표현한 글이다.

이 한 그루 나무 위에 앉으면
새들은 푸른 지저귐을 자랑하고

그 어딘가에 닿으면
온갖 생명들은 꿈틀거림을 시작한다.

옛적 그 나무 위의 희생이
태고 적 나무의 저주를 토해내고
세상 모든 생명의 신음을 거두었듯이

이제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이 한 그루 나무도
희망의 열매를 꿈꾸고 있다.

④ 모임의 교육을 위한 주요 자료 및 활동:

『부모가 아이를 화나게 만든다』	목표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한다.
	방법	독서, 요약정리, 발표
	시기	모임 사전
『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한다』	목표	연구 참여자의 어린 시절을 심도 있게 탐색하여 원인과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도를 한다.
	방법	독서, 발표
	시기	모임 초반부
『마음을 치유하는 101가지 이야기』	목표	치료 목적 은유적 이야기의 기능, 개발방법, 기법을 학습한다.
	방법	독서, 발표, 정리
	시기	모임 중반부
	비고	책의 제1부에서 제시하는 은유와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 및 치료 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함.
『이야기로 치유하기』	목표	은유와 은유적 이야기의 치료적 활용 방법과 사례를 학습한다.
	방법	독서, 연구책임자 강의, 정리
	시기	모임 중반부
	비고	은유치료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이론적, 기술적 내용 및 치료 사례를 확인하고 학습함.

⑤ 모임 일정, 장소, 구성: 기간은 2014년 4월 초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예비모임과 본모임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모임은 모임의 방해를 덜 받는 조용한 커피 전문점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을 번갈아가며 회기를 진행하였다. 오전에 만나서 점심식사까지 모임이 이어졌다. 모임 진행의 전반적인 구성은 모

임 주제 관련 대화 시간, 은유적 이야기 창작 교육 시간, 은유적 이야기 치료 시간, 설문지 작성과 확인 과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3.2 모임 사례

3.2.1 모임 초반부(1-3회기)

연구 참여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양육을 주제로 한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의 내용, 취지, 효과 등을 소개 듣고는 모임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양육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많은 이들이 이른 나이부터 늦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걱정의 대상이고 그 방법을 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가장 비중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 참여자 또한 30대 후반의 현 시점에서 양육 문제를 가능한 이성적인 시각에서 결혼 이전 시절의 상처를 치료하여 발전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는 본 모임 이전에도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을 수차례 받았고 배우자의 지속적인 지지와 도움도 적지 않았으며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종종 이 문제가 주제가 되곤 하였다.

이번 모임에서도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결혼 직전까지도 아버지의 문제 행동과 태도로 인해 고생한 사건들에 대해 그 강도가 약한 사건들부터 하나 둘 꺼내놓았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이 문제는 연구 참여자가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임을 짐작케 했다. 그녀는 사전 설문 조사와 모임 회기 진술에서 본인의 자녀양육태도의 문제가 상당 부분, 본인 친부모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로의 대물림을 염려하였고 이를 반드시 본인 선에서 끊어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를 몇 차례나 언급하였다.

설문지 항목: "Ⅴ-1. 나와 함께 살았던(대개 결혼 전)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자유롭게 적어보시오? (친절, 관대, 넉넉함, 배려, 사랑, 아쉬움, 고통, 상처, 무관심, 분노, 안타까움... 등등)"에서 연구 참여자의 부모님, 이 분들 중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기술에서 '심상치 않았던 어린 시절'과 이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 *나의 부모님은 말이 거칠고, 거칠 것이 없는 분들이셨다. 나는 항상 숫기가 없어서 어렸을 때 별명이 "쑥"이었던 기억이 난다. 그것도 초등학교 입학 전의 별명이...*
>
> *부모님의 거친 언어나 아버지의 알코올중독증은 바람 잘날 없는 그런 가정환경의 대표 격이다.*

모임 초반부는 본격적인 교육과 치료를 행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 형성, 신뢰감 형성을 위한 시간이었다. 모임의 사전 독서 자료인『부모가 아이를 화나게 만든다』와『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한다』를 독서하고 함께 리뷰하면서 본인과 자녀 간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였다. 구성원들은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이였지만 부모님으로부터의 상처를 얘기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점점 모임과 관련한 과도한 질문, 모임 참여 회피, 과거의 문제 상황을 크게 경감시킨 진술 등의 모습을 종종 보였으며 본인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기보다는 본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일종의 본격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위한 본인과 동료 그리고 연구책임자를 향한 준비 작업이자 자신의 힘겨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 과정이었다. 그래서 모임 초반부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아도 안전할 것인가를 조심스레 가늠하는 시간도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빈번하게 떠오르는 장면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 작성하였다. 이

과정은 어린 시절에 겪은 사건과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모임 구성원들이 동료 연구 참여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해당 연구 참여자에 맞는 은유적 이야기를 계발하기 위한 소재를 찾고 치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주로 7살이나 그 이전이었을 거 같은 기억이다. 엄마가 세 아이와 성실하지 못한 아빠와 사느라고 고생스러우셨던 거 같다. 철이 들면서 엄마를 이해하였다. 엄마는 우리에게 곧잘 화를 내셨고 우리는 늦게 들어오시는 아빠를 기다리며 집 밖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놀았던 기억이 난다. 아빠의 손에는 항상 핫도그용 빵이나 다른 간식거리들이 들려 있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와 있으면서 화내는 엄마보다 저녁 늦게 들어오시지만 우리에게 웃어주는 아빠가 그 땐 더 좋았던 기억이 난다.

아빠는 택시 운전을 하셨다. 한겨울이었다. 같은 회사 친구 분의 요청으로 택시 가스통을 같이 들고 옮기다가 마당에 화로가 있었는데 그 근처를 지나가다 가스통이 터져서 화상을 입으시고 입원을 하셨다.

엄마가 병간호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외할머니께서 내려오셨다. 외할머니 눈이 침침하기 때문에 엄마는 달력에 아빠 병원이름, 전화번호, 호실을 커다랗게 적어놓으셨다.

하루는 동네 언니가 남포동에 놀러가자고 하였다. 당연히 남포동까지는 내가 살던 영도에서 영도대교를 건너면 바로 있었기에 둘이 남포동을 갔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화당 백화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언니랑 구경을 하였다. 에스컬레이터는 그 당시 잘 구경할 수 없던 신기한 것이었다. 안내양이 에스컬레이터 앞에도 서 있었다. 누가 먼저 그러자고 한 것도 없이 언니와 나는 상향하는 에스컬레이터를 같이 뛰어 내려갔다. 초등학생인 언니는 아래층에 도착했고 아직 7살인 나는 에스컬레이터 중간에서 안내원에게 저지당해 다시 위층에 도착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맞은편에 있다는 사실은 그 때는 몰랐기 때문에 언니를 찾으러 비상구를 향해 갔다. 한 층을 내려갔지만 언니는 없었다. 그리고 계속 내려와 미화당 밖으로 나왔는데, 잘 알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영도대교에서 미화당까지는 그리 먼 곳이 아니기에 혼자서 길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가도 가도 내가

아는 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무슨 생각에선지 나는 쉬지 않고 앞으로만 걸어갔다. 한참을 가는데 비닐하우스도 나오고 그리고 터널이 나왔다. 여기가 시골인가 하고 생각했던 기억, 길 가는 어른들에게 영도 가는 버스 어디서 타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영도가 어디냐고 반문하는 어른들 밖에는 만날 수 없었다. 7살이라 버스비는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영도 가는 버스 타는 곳만 물으며 걸었던 기억,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100원 동전을 손에 쥐어주던 기억 그래서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50원 하는 소라과자를 사먹고 잔돈 50원은 손에 꼭 쥐고 그리고 계속 걸었던 기억이 난다.

터널을 지났는데 맞은편에서 대학생쯤 되는 청년 둘이 터널에서 나와 매연에 싸여 새까맣게 그을린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여차여차 이야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나를 번쩍 들어 안어 그 자리에 서있고 다른 한 청년이 어디론가 뛰어갔다 왔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간 곳은 파출소였다. 그 파출소는 엄궁파출소였다. 엄마는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택시를 타고 그곳까지 오셨다. 엄마는 많이 놀라며 내 이름을 불렀던 기억...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아빠가 입원한 병원이었는데, 우리를 데려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나는 엄마랑 택시를 타고 아빠가 입원한 병원에 갔고, 나는 병실에서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아빠를 보았다. 내가 엄궁까지 갔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는 누워서도 펄쩍펄쩍 흥분하셨다고 한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아빠는 내가 꽉 쥐고 있는 한 손 주먹을 펴라고 하셨고 나는 손을 폈다. 손에 쥔 50원 동전을 보시고 아빠가 우셨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현재로서는 요원한 바람이지만 연구 참여자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희망하였다. 비록 이제까지 있었던 아버지의 언행을 생각하면 분노에 휩싸이고 관계를 끊고 싶을 지경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이루지 못했던 다정한 아빠와 딸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이제라도 앞으로 부녀 관계가 점차 회복되길 희망하는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 이후로도 친정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지 않고 늘 갈등 상황에 처하였다.

3.2.2 모임 중반부(4-9회기)

연구 참여자는 모임 초반부보다 더 많이 자신의 '문제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대화에서는 점점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오갔고 과거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맨살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는 종종 눈을 붉게 적시기도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며, 고스란히 혼자서 상처를 받아야 했던 무대 저편으로 숨은 꼬마를 달래어 어렵게 등장시켜야 했다. 모임 중반부 내내 이 같은 공감적 이해, 수용적 존중을 중심으로 한 치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고 이 같은 문제발설을 통한 해소 과정은 은유적 이야기 치료 못지않게 연구 참여자에게 중요하고 실질적인 치료 과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앞으로 진행할 은유적 이야기 창작과 치료 과정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었다.

> *제가 장녀라서 동생들 대신 어렸을 때도 제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맞을 때 여러 번 실신했어요. 아파서가 아니라 제 키보다 큰 몽둥이로 맞는다는 공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보다는 우리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결혼 인사한다고 신랑이랑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려고 집에 갔는데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계단에서 신랑 보는데 아빠한테 발로 맞았어요. 그 당시 뭐가 그리도 기분이 나쁘셨는지 아니면 신랑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곧 결혼할 딸한테 결혼할 남자 보는 앞에서 여자를 발로 걷어차는 일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한 편으로 모임에서는 은유적 이야기 창작과 치료 방법에 관한 이론과 사례에 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먼저 은유를 통한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은유의 치료적 기능・활용・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번즈의 편저서 『이야기로 치유하기 - 치료적 은유 활용 사례집』, 저서 『마음을 치유하는 101 가지 이야기』에서 이론

과 실제를 위한 방법의 제1부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모임에서는 은유적 이야기 개발을 위해서 'PRO(Problems Addressed - Resources Developed - Outcomes Offered)' 접근법을 모델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의 문제 확인:
상처, 분노, 스트레스, 문제 상황에서의 고립 등

⇓

연구 참여자의 자원 개발:
사고의 유연성, 가족의 지지, 은유적 표현 '헐크',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희망 등

⇓

연구 참여자 문제의 해결과 희망적 결말:
과거 문제의 관점과 태도 변화, 문제의 이야기로 인해 묻혀 있었거나 잃어버린 연구 참여자의 자원과 장점들인 사고의 유연성과 가족의 지지 등을 재발견, 문제의 이야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야기 획득, 가족에게 분노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태도의 경감 등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책임자가 위의 번즈의 저서들과 앞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은유치료 실제 사례뿐 아니라 은유의 기능, 특징, 은유적 이야기, 그리고 이것의 치료적 활용과 효과 등을 학습하였다. 다음은 은유적 이야기 교육 내용 가운데서 치료 기능으로써의 은유와 은유적 이야기의 주요 장점이자 특징들이다.

· **문학의 매력**: 영화, 드라마, 소설, 옛날이야기 등 문학은 그 자체가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매력적이다. 연구 참여자를 위해 고안한 은유적 이야기는 그 자체가 호기심이 가는 값진

선물이다.[30]

· **은유의 상호작용 기능**: 은유적 표현과 은유적 이야기는 그 안에 내재된 기능적 특징인 은유 탐색과 이야기로의 집중 작용을 청자와 화자로 하여금 유발시킴으로써 상호 간의 능동적인 대화 상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은유적 이야기 창작 과정과 치료 상황에서도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대화 상황을 연출하도록 자극한다.[31]

· **거부감을 감소시키는 기능**: 은유와 은유적 이야기는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주는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를 위해 고안한 은유적 이야기는 문제에 대한 회피나 저항을 피하게 한다.[32]

· **탐색 역할**: 연구 참여자를 위해 고안된 은유적 이야기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이야기와 자신과의 관련성 · 의미 · 이유를 찾도록 작용한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궁금증 유발과 그 이유를 찾는 과정은 연구 참여자(또는 내담자)의 치료 과정 자체가 된다.[33]

· **연결 고리 역할**: 은유적 이야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다리 교두보 역할을 한다. 은유는 표현, 경험, 인지하지 못했던 의식 세계의 행위 근거를 무의식 세계에서 찾도록 돕는다.[34]

---

30) Brett, Doris: *Therapeutic Storytelling Technique*, New York, Magination, 1992.

31) Spandler, Helen · Roy, Alastair · Mckeown, Mick: Using Football Metaphor to Engage Men in Therapeutic Support,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 Psychotherapeutic Approaches in Health, Welfare and the Community 28-2, 2013, pp. 229-245.

32) Lyddon, W. · Clay, A. · Sparks, C.: Metaphor and change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79, 2001, pp. 269- 274.

33) Levitt, H. · Korman, Y. · Angus, L.: A metaphor analysis in treatments of depression - Metaphor as a marker of change,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3, 2000, pp. 23-35.

· **문제에 대한 대안적 기능**: 은유적 이야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이야기'는 과거의 문제에 의해 정체된 이야기의 방향성을 틀어 희망적인 세계로 청자를 인도한다.[35]

등등

모임에서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 창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나는 동료 연구 참여자가 초안을 정해서 개발하면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창작·점검하는 방식(#1.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 다른 하나는 연구책임자와 해당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의 초안을 정하고 연구책임자와 동료 연구 참여자가 협동으로 창작·점검하는 방식이었다(#2. *썩은 녹색의 헐크에서 에메랄드빛 헐크로*). 마지막으로 연구책임자는 치료과정 이전에, 최종 점검을 통해 이야기의 치료적·미적 기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작업을 하였다.[36] 이외에도 모임에서의 대화와 은유적 이야기 낭독은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대화와 치료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책임자 모두 어투, 정조,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유지 등을 고려하여 매 순간 해당 상황에 맞게 기술적이고 능숙하며 재치 있게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

34) Lyddon, W.·Clay, A.·Sparks, C.: Ibid., 2001.

35) Tierra, Lesley: *Metaphor-phosis - Transform your stories from pain to power*, Bloomington Indiana, Balboa, 2012.

36) 교육과 문헌 확인을 거쳤음에도 이야기 개발 작업은 연구 참여자들의 의욕과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연구책임자는 연구 참여자가 생산한 이야기에서 치료적 기능 유무 확인, 치료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작업, 이야기 속 인물 선정의 적절성 확인과 보완, 사실적 이야기에 가까운 글을 은유적 이야기로 발전시키는 교육 등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연구 참여자들이 생산한 은유적 이야기가 사건 전개의 구성력(Plot)을 갖추어 인물의 단순하고 밋밋한 행위 나열식 전개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1.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

아빠:

오늘도 피곤한 하루다. 손님은 없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니 본전이나 남았나 모르겠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가 보고 싶네. 우리 어머니의 자랑거리이던 나는 어디에 간 거지? 내가 봐도 나는 참 영리한 아이였는데. 지금도 나는 내 머리와 내 능력이 썩 쓸만하다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어딜 가도 똑똑한 아이라 칭찬받아서 당당하던 나는 사라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

유진:

나는 엄마 아빠가 참 좋아요. 그런데 가끔 아빠는 날 너무 무섭게 해요. 한없이 다정하게 느껴지다가도 갑자기 아빠는 변신을 해요. 활기차고 재미있는 우리 엄마 옆에 있으면 나는 즐거운 상상을 해요.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엄마가 말해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멋지게 해내고 싶지요. 하지만 아빠는 내가 할 수 있다 말해주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빠의 마음에 차지 않으면 나는 또 변신한 아빠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아빠의 왕국이지요. 변신한 아빠의 초라한 왕국.

-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어느 날 저녁 -

유진:

나는 혼자 놀기도 잘하고요. 또 같이 놀기도 잘해요. 나는 잘 못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부끄러워요. 엄마랑 아빠는 일하러 나가셨어요. 늘 바쁜 우리 엄마 아빠지요. 나는 동생들도 잘 돌봐요. 동생들의 식사를 챙기는 건 종종 내 몫이에요. 난 아직 2학년 밖에 안 되었지만, 나는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니지만 나는 종종 동생들에게 엄마가 되어 주기도 한답니다. 아이쿠. 동생들이 밥을 먹다가 밥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빨리 정리하고 난 뒤, 동생들과 함께 골목길로 나가 엄마아빠를 기다려요. 아, 언제오실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오늘도 하루 종일 작은 차 안에서 몸 한 번 제대로 펼 수 없었다. 여느 날처럼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거는 손님과 한 번 실랑이도 해야 했지.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어쩐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 오늘도 애 엄마는 약한 몸으로 고생하다 들어오겠지. 우리 유진이는 동생들 돌보느라 힘들었겠지. 우리 가족 모두 힘이 드네. 나만 고생하면 좋겠는데. 아, 속상하다. 술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본다. 저기 저 앞에 우리 토끼 같은 내 새끼들이 나와 있네. 이 바람이 부는데 점퍼도 제대로 안 입고. 저 막내 녀석의 지저분한 얼굴은 또 뭐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집 안 꼴이 말이 아니다. 말 안 해도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애썼을지 알지만, 오늘 따라 속이 상한다. 결국 "유진아! 이게 뭐니!" 유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우리 순둥이 유진이한테 아빠가 또 소리를 쳤구나. 이 소리는 너를 향한 것이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 아이들의 엄마가 된 유진, 할아버지가 된 아빠 -

유진:

오늘도 아빠는 나에게 소리를 치시네요. 소리치시는 아빠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다는 걸 이제는 나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커다란 어른이 되었어요. 아이 둘의 엄마도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나도 사람들이 참 좋아요. 아빠의 '큰 소리'가 나를 너무 힘들게도 했지만, 나를 자라게도 했네요. 아빠가 왜 소리치는지 이해하려 애쓰던 버릇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빠의 큰 소리에서 우산처럼 동생들을 씌워주고 싶던 내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은 나를 만들었어요. 나는 쉴만한 물가에 있는 나무 그늘과 같은 사람이지만 내 그늘에 아빠가 앉아 쉬실 자리가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야 물어봅니다. 내 그늘이 넓어지도록, 내 가지가 굵어져야겠어요. 아빠가 쉬실 수 있도록. 너무나도 아팠고, 지금도 아프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게 상담사가 되어 보라고 해요. 나도 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아빠가. 아빠가. 할 수 있다고, 넌 참 잘 한다고 아빠의 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빠:

유진아. 너를 조용하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이 어색한 아빠다. 너를 다정하게 부르기엔 너는 이미 커버린 엄마가 되었다. 너를 다정하게 부르기엔 이제껏 너를 안아주지 못한 내 자신이 초라하다. 그래서 오늘도 네게 소리를 치는구나. 네가 가고나면 또 후회할 것을. 나는 나를 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너는 어렸을 때도, 지금도 참 든든한 사람이다. 아빠에게만 든든하더니 너는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든든한 이가 되어주고 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 시절, 내가 참 미련했다. 우리 딸 유진이 손 한 번 더 잡아 줄 것을. 우리 딸 유진이와 줄넘기 한 번 더 할 것을. 우리 딸 유진이에게 든든한 내 딸이라고 칭찬해 줄 것을. 이제는 너무 늦었을까? 친정 대문을 나서는 너의 뒷모습에 나는 오늘도 큰소리 치고 싶다. 유진아!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미안하다.

은유적 이야기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의 의의와 분석: 모임의 구성원인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 참여자들이 동료를 위해 창작한 이야기를 해당 연구 참여자가 듣는 것은 한 편으로는 긴장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기대되는 일이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좀처럼 이런 선물을 받을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모임에서 만든 이야기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모임의 대화 과정과 교육 기간을 통해 서로의 문제를 자세히 알게 된 동료들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서 낭독해주고 글을 선물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었다. 이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은유치료의 주요 특징들이 몇 가지 들어있다. 첫째,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 그러나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아픔의 이야기는 동료들의 지지를 받으며 동료가 만든 새로운 이야기, 문제의 이야기로부터 벗어난 대안적 이야기를 만난다.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자원을 지닌 연구 참여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문제의 이야기를 재조명, 재해석하고 해결책을 재발견함으로써 과거의 문제 상황은 유연해지고 희망적인 삶으로의 가능성을 찾게

된다. 둘째, 나인 듯 내가 아닌 듯 걸쳐 있는 은유적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적인 내용으로만 진행되는 대화의 부담감이 덜 수 있었다. 과거 문제의 삶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고 상할 수도 있는 연구 참여자에게,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이야기는 문제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기회가 된다. 셋째, 연구 참여자는 은유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현실세계와 이야기의 은유세계를 번갈아가며 관련성을 찾아다니는데, 두 이야기 간의 관련성을 찾아다니는 것이 치유 여정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는 인지하지 못하면서 치료시간을 보내게 된다.

동료가 들려준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을 들으며..: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나의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으론 '아~ 그랬겠구나.' 하는 민망한 마음과 뭔가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여겨지는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다. 어린 시절, 그때 아빠의 그런 마음을 알았더라면... 다른 모습의 내가 되었을까. 그 때 내가 아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아빠 안에 있던 자라지 못한 어른 아이의 모습을 안아줄 수 있었을까?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흘러버린 시간이지만 '아빠에게도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아빠에게도 나에게도 홀로 싸우는 그 싸움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사실을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깐깐하고 까칠한 다부진 근육질의 풍채를 자랑하는 아빠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 또한 아니지만, 그 홀로 싸우는 그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풀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빠의 모습이 이제는 가련하게 여겨진다.

어린아이였던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존재였던 아빠에게 받고 싶던 사랑을,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를 나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홀로 헤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 또한 나 혼자 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긍정의 거름이든 부정의 거름이든 자라게 하는 거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모임의 동료 글을 통해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나눔을 통해 듣게 되는 간접 경험이 되는 글을 통해서 '아, 내가 인정받기를 사랑받는다는 것을 갈망하던 한 어린 아이였구나.'를 알게 되었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이야기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와 닿게 되었다. 힘들었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 나와서 제 3자가 되어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야기 속의 아빠와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2. 썩은 녹색의 헐크에서 에메랄드빛 헐크로

"악! 헐크다아. 아빠, 엄마가 또 헐크 됐어요."

아들이 호들갑을 떨며 낄낄 거리는 원숭이처럼 아빠에게 소리치며 달려간다.

"너 자꾸 늑장 부릴꺼야! 숙제 늦게 하면 힘드니까 할 일 다 하고 놀라고 했지? 7시까지 놀다 와서 열심히 한다고 약속을 하고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일주일 동안 친구랑 놀이터에서 못 노는 줄 알아!"

잔소리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나는 어느 샌가 잔소리 속사포가 되어있다. 잔소리를 하고 나면 갑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말아야 하는데, 잔소리 속사포에서 시작하여 어느새 썩은 녹색의 헐크로 변신하고 있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따끔하게 혼을 내고 말아야 하는데, 마음의 절제가 안 되고 얼굴도 붉으락푸르락, 눈빛도 무섭게 레이저를 발사하고 있단 말이야.'

"아빠, 엄마 헐크예요"

나는 주방 쪽에서 혼잣말로 잔소리를 마무리하고 있다. 큰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접하고 있던 남편이 드디어 거실로 나온다. 아들의 지원군이다.

"윤호가 엄마 말 잘 들어야 하지. 뭐 해야 하지?"

남편은 아들과 함께 잠언 1장을 한절씩 번갈아가며 읽어주다. 큐티 아이 묵상하는 것도 지켜봐 주고 수학은 과감하게 1장에서 한바닥으로 줄여준다. 한자를 마무리 할 때도 옆에 앉아 있어준다.

남편의 여유로운 따뜻한 마음과 체온이 전달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안 할 태세의 황소 같던 아들의 마음은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았나 보다. 재잘재잘 거리며 하고 있다.

"뭘 잘 했다고 줄여줘요? 너,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놀이터에서 친구랑 못 놀아. 벌이야!"

나는 다시 한 번 일침을 놓는다.

"아빠, 엄마 생일날 헐크 가면 사줄꺼에요."

"윤호야, 헐크는 빨간 팬티가 세트다."

"히히히, 하하하"

뭐가 그리 우스운지 부자지간 웃음꽃이 피었다.

"참~ 내."

난 한마디 할 뿐이다.

나는 늘 즐거운 8살 아들 때문에 화가 났다가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한다. 너무 어이가 없다. 썩은 녹색에 악취를 내품는 괴물은 점점 차분해지고 연한 초록색으로 변해간다.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소파에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소파 아래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많이 무섭지?"

"네, 우리 혼낼 때는요."

"엄마가 헐크처럼 혼낼 때는 엄마가 싫지?"

"아뇨, 엄마 좋아요. 혼낼 때만 싫어요."

아주 솔직한 아들이다.

"엄마도 윤호한테 혼내고 소리치고 또 헐크가 됐을 때, 엄마도 엄마가 너무 싫어. 윤호도 엄마를 도와줄래? 엄마도 윤호가 힘들어하는 거 억지로 시키는 것 아니잖아. 매일 하기로 정해진 것을 하는 건데, 윤호가 미루고 며칠 동안이나 하지 않고 약속을 계속 어기니까 엄마도 하라고 말하다가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혼내는 게 되고, 혼내다가 엄마 마음에 엄마도 화나고 속상하니까 헐크가 되는 것 같아. 윤호야 너는 엄마가 무서운 헐크면 좋겠니?"

"아뇨, 안 좋아요"

"그래, 엄마도 예쁘게 말하고, 아이들에게 다정한 엄마이고 싶은데, 어느새 헐크가 되어있네 미안해. 윤호야 엄마 도와줄 수 있지?"

"네"

이러고 나서도 우리 집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헐크가 등장한다. 그

리고 낄낄거리며 까불거리는 원숭이처럼 나의 속을 이리저리 뒤집어 놓는 아들이 있다. 남편은 헐크로 변신 중이나, 변신 되어있는 아내에게 판소리의 "얼! 쑤!" 추임새 같은 다양한 재치 있는 말을 사용해 피식 웃게 만들어 바람 빠져가는 풍선처럼 무력한 헐크로 만드는 여유롭고 맘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썩은 녹색의 성난 괴물은 푸른 바닷가의 맑디맑은 에메랄드 빛 헐크를 상상한다. 사랑에 찬 눈빛의 헐크를 말이다.

은유적 이야기 '*썩은 녹색의 헐크에서 에메랄드빛 헐크로*의 의의와 분석: 일반적으로 상담 시에 내담자는 치료자와의 대화중에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은유를 표현하기 마련이다. 물론 치료자가 의도적으로 은유적 표현을 내담자로부터 유도하거나 치료자가 내담자 상황에 맞춰 은유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본 모임 과정에서도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문제와 관련한 대화에서 몇몇 은유적 표현을 발설하였고 '헐크'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어린 아들로부터 모임 이전부터 모임 시까지도 종종 들은 헐크는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은유적 표현이기에 연구 참여자는 매우 당황스러워했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신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만화와 영화 캐릭터 헐크는 '*썩은 녹색의 헐크에서 에메랄드빛 헐크*'라는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를 생산하기에 유용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치료를 위해 온가족이 등장하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희망적 결말을 이룬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다.

'썩은 녹색의 헐크에서 에메랄드빛 헐크로'를 모임에서 접하고..: "엄마 헐크예요."라는 말을 아들에게서 처음 들었을 때는 참 무안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디서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헐크라고 놀리듯이 얘기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모임 동료들에게 말하기도 정말 싫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의 다른 한 편에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이들을 잔소리로 혼내

다가 어느새 분이 올라 나도 모르게 점점 헐크로 변신해가는 나의 모습을 말이다. 그 모습으로 나는 나보다 어리고 약한 두 아이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순간 헐크처럼 거대하고 무섭게 변신해 있는 모습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는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헐크, 부끄럽지만 어두운 나의 자화상 같은 헐크는 정말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도 없고 떼려야 뗄 수 없어서 나를 숙연하게 만들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날 부끄럽게 만든 헐크라는 은유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나를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이었다.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썩은 녹색의 헐크가 에메랄드빛의 순하고 아름다운 엄마 헐크로 점점 변하는 과정과 훈련의 기회가 되었고 희망의 세계를 꿈꾸도록 도와주었다.

3.2.3 모임 후반부(10회기)

모임 구성원들은 10회기에서 본 모임을 통한 유익 및 효과, 본인과 모임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 등 모임 전반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해당 문제의 연구 참여자 또한 본인이 경험한 모임에 대한 견해와 소감, 유익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임을 통해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 창작 방법과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를 만드는 유용한 모임이었다. 치료가 필요한 어떠한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하기, 즉 새로운 이야기로 구성되어진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경험과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직접적인 단어의 구성으로서가 아니라 은유적 소재를 통한 주인공의 3자가 되어보기나, 문제 상황 속에서 꼬집듯 잡아낸 해학적인 단어의 사용이 굳어있거나 닫혀있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은유, 비유, 대조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물이 무엇일까? 이야기 속 상징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상대의 입장에 서는 공감능력과 위로 내지는 치료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의 전개와 결론에 대해*

고려하는 능력이 생겼다. 공동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적이고 미적인 은유적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모임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야기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싶다. 이 모임 이후에 있을 나의 아이들을 위한 은유적 이야기 모임이 기대된다.

모임은 연구 참여자의 상처 치료와 문제 해결에 긍정적이고 유용한 과정이었다. *개인 상담이 아니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이었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 개인의 문제와 연결고리는 없을지라도 다른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함께 공존함으로써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나의 환경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준 시간이었다. 근본적인 문제, 즉 상황은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내면의 움직임들 그리고 다양한 시각들로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생각의 좁은 틀을 벗어나는데 모임과 은유적 이야기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과거 문제의 생각 틀에 갇혀 있다 보면 현재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어서 잘못된 방법의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생각의 한 걸음을 물러서는 시간적 여유와 함께 문제 상황 속에서 3자가 되어보기를 하고나니 문제에 급급하지 않는 현재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나누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익숙한 것은 아니라서 어떨까하고 궁금했다. 은유적 이야기뿐 아니라 이 모임의 모든 작업의 시간들이 밑거름처럼 녹아들어 사랑 받고 있고 위로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시금 생각해보니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기 보다는 좀 더 나를 편안하게 하고 기쁠 수 있는 것들로 채워가기를 돕는 은유적 이야기들이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온전히 용서하거나 선뜻 다가가기 힘든 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타자로 세워놓기로 했다. 그 어린 아이를 불러 위로해주고 안녕을 고했다. 어린 시절 상처를 받은 화가 난 나를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이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배운 은유로든 의식적으로든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나를 향해서 걸어가고자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부모양육 문제를 주제로 한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에 관한 사례 연구다. 모임 구성원들은 은유적 이야기라는 문학행위의 한 방법을 사용하여 마음의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서 구성원들은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지지하고 동료를 수용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십여 차례 모임을 통해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문학과 글쓰기에 관한 기초 역량과 흥미가 있었고 모임 제안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혀서 모임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모임에서 여러 차례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의 문제를 해소하는 시간과 은유적 이야기 개발을 위한 글쓰기를 통해서 개인 문제를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는 점이 이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았다.[37]

하지만 모임에서의 아쉬움은 은유적 이야기 창작 과정을 더 긴 시간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갖추고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문학 학습과 관련한 활동이 거의 드물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은유적 이야기 창작 연습 기간이 더 필요했음을 밝혔다. 연구책임자는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은유치료와 관련한 이론 연구와 실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임의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갈등과 상처의 문제를 다룬 한 연구 참여자의 사례에 집중하였다. 가족 안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와 역할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녀

37) 손정희·이현주, 「제한된 여성의 위치와 전복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치유 효과 - 이디쓰 워튼의 '뒤늦은 연인들', '나머지 둘'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72권, 2014, pp. 211-213.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가족의 버팀목,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 가족의 경제적 지원, 배우자와 자녀의 정신적인 안정 등을 지원하고 지탱하는 견고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온정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 얼마나 이것을 갈망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연구 참여자가 이번 모임에서 느낀 감정을 본인이 창작한 시적 텍스트로 표현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 한다.

드넓은 광활한 대지 위
푸르른 하늘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곳
눈앞에 펼쳐진 주어진 그곳

넓고 따뜻한 대지 위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가시덩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곳으로 가야하지
저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데

한참을 생각합니다
어느 틈새라도 있을까
가시덩굴을 따라 조심스럽게 따라 걷습니다.
가도 가도 조금의 틈새도 없군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입니다.
누가 저곳으로 나를 데려가 줄까요
무엇이 나를 저곳으로 들어가게 해줄까요
내 몸이 들어갈 크기의 틈새가 있나요

온몸에 가시의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촘촘해지는 가시철조망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 가시덩굴을 벗어 날수 있을까요.
다시 가시철조망에 온몸이 긁힙니다.

들어갈 때는 조심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옵니다.
더 이상 그 상처는 상관없습니다.
아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넓은 광활한 대지 위
푸르른 하늘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곳
눈앞에 펼쳐진 주어진 그곳

넓고 따뜻한 대지 위
그곳은 따뜻하고 살기 좋을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덩굴 옆에서 그곳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1. 논문

김상우,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정도가 장애아동의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2012.

김선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놀이성과 아동의 리더십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심리치료학과 놀이치료전공, 2013.

김영천 · 이희용, 「질적연구에서의 글쓰기 – 문학적 표현양식들의 이해」,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제56집 3호, 2008, pp. 187–222.

김현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초등상담교육전공, 2013.

김현지, 「과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성인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정신전문전공, 2012.

서경현 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정폭력이 대학생의 연인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1호, 2007, pp. 153-170.

손정희 · 이현주, 「제한된 여성의 위치와 전복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치유 효과 - 이디쓰 워튼의 '뒤늦은 연인들', '나머지 둘'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72권, 2014, pp. 209-238.

원희랑 · 서보남, 「가정폭력쉼터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연구』 제17권 4호, 2010, pp. 879-899.

이민용, 「서사 담화와 정신분석학 기반의 내러티브 치료」, 『독일문학』제125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13, pp. 163-184.

Carmichael, Karla D.: Metaphorical Intervention in Alcohol Dependency,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18-4, 2000, pp. 111-118.

Dielman, C. · Stevens, K. · Lopez, F.: The Strategic Use of Symptoms as Metaphors in Family Therapy - Some Case Illustration, Journal of Strategic & Systemic Therapies 3, 1984, pp. 29-34.

Legowski, Terasa · Brownlee, Keith: Working with Metaphor in Narrative Therapy,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12-1, 2001, pp. 19-28.

Levitt, H. · Korman, Y. · Angus, L.: A metaphor analysis in treatments of depression - Metaphor as a marker of change,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3, 2000, pp. 23-35.

Lyddon, W. · Clay, A. · Sparks, C.: Metaphor and change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79, 2001, pp. 269-274.

Spandler, Helen · Roy, Alastair · Mckeown, Mick: Using Football Metaphor to Engage Men in Therapeutic Support,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 Psychotherapeutic Approaches in Health, Welfare and the Community 28-2, 2013, pp. 229-245.

Sullivan, M. A.: Voices Inside Schools - Notes from a Marine Biologist's Daughter: On the Art and Science of Atten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70-2, 2000, pp. 211-227.
Wilkinson, L V.・Buboltz, W.: Anecdotes, Metaphors, and Stories - A Clinical Technique for Group Therapy. Journal of Clinical Activities, Assignments and Handouts in Psychotherapy practice Vol. 1-2, 2001, pp. 43-57.

2. 단행본

고미영,『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서울, 청목출판사, 2004.
권영민,『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2009.
김선하,『리쾨르의 주체와 이야기』,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7.
김영천,『질적연구방법론Ⅲ Writing』,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2013.
모건 스캇 펙(Morgan Scott Peck) 지음, 윤종석 옮김,『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3.
모건 스캇 펙(Morgan Scott Peck) 지음, 최미양 옮김,『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 서울, 율리시즈, 2011.
우르술라 누버(Ursula Nuber) 지음, 김하락 옮김,『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한다. *Lass die Kindheit hinter dir - Das Leben endlich selbst gestalten*』, 서울, RHK, 2010.
이정숙,『부모가 아이를 화나게 만든다』,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7.
조지 W. 번즈(George W. Burns) 지음, 김춘경 옮김,『마음을 치유하는 101가지 이야기 *101 Healing Stories for Kids and Teens - Using Metaphors in Therapy*』, 서울, 학지사, 2009.
조지 W. 번즈(George W. Burns) 편저, 김춘경・배선윤 옮김,『이야기로 치유하기 - 치료적 은유 활용 사례집 *Healing with Stories -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서울, 학지사, 2011.
폴 C. 비츠(Paul C. Vitz) 저, 장혜영 옮김,『신이 된 심리학 *Psychology as Religion*』,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Brett, Doris: *Therapeutic Storytelling Technique*, New York, Magination, 1992.
Burns, George W: *101 Healing Stories for Kids and Teens - Using Metaphors in Therapy*, New York City, John Wiley & Sons, 2004.
Clandinn, D. Jean・Connelly, F. Michael: *Narrative Inquiry -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2004.

Erickson-Klein, Roxanna: The Metaphor That Sang Its Own Sad Song: Therapeutic Storytelling in Pediatric Hospice Care, in: Burns, George W.(Ed), *Healing with Stories -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7, pp. 199-209.

Kafka, Franz: *Die Verwandlung*, Stuttgart, Reclam(c 1912), 1995.

Kopp, Richard: *Metaphor Therapy - Using Client-Generated Metaphors in Psychotherapy*, New York, Routledge, 1995.

Kopp, Richard: An Empty Sadness: Exploring and Transforming Client-Generated Metaphors, in: Burns, George W.(Ed), *Healing with Stories -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7, pp. 30-43.

McNeilly, Robert: Night, Night, Sleep Tight, Don't Let the Sharks Bite: "What's Missing?" in Metaphors, in: Burns, George W.(Ed), *Healing with Stories -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7, pp. 190-198.

Smit, Gregory: Trekking to Happiness-No Sherpa Required - A Utilization Approach to Transcending an Abusive Relationship, in: Burns, George W.(Ed), *Healing with Stories -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7, pp. 89-99.

Tierra, Lesley: *Metaphor-phosis - Transform your stories from pain to power*, Bloomington Indiana, Balboa, 2012.

Weißenborn, Theodor: Außenseiter - eine Kategorie der Verdrängung Zur sozialen Aufgabe einer Literatur, die sich als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 versucht, in: Petzolt, Hilarion G.・Orth, Ilse(Hgg.): *Poesie und Therapie - Über die Heilkraft der Sprache*, Bielefeld, Sirius, 2009, S. 159-166.

Yapko, Michael D.: The case of carol - Empowering decision-making through metaphor and hypnosis, in: Burns, George W.(Ed), *Healing with Stories -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7, pp. 67-78.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terary Actions as Education and Therapy

- With Education and Therapy Meetings of Metaphoric Stories -

Lim, Chun-T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ing a case study about a group meeting based on education and therapy of metaphoric story. In the meeting the participants dealt with a major theme about wounds gotten by their parents during their childhood as well as adolescence. This study focused a woman's case. She had been physically and emotionally abused from her childhood. She married and she was trying to overcome her tragedies. This study is consist of three parts. First, some theoretical view based on metaphor story. Second, the importance of solving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especially from fathers. Third, a case of the education and therapy of metaphoric story. This study shows understanding a person's life, who has some trouble and background, and processing of healing the wound. Also, this study shows the method for development and therapy of metaphoric story through which the participant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as not just subjects but they carried the creative works for developing stories. The very reason was that they could set a goal, that was they themselves would proceed for their children while they learned the technique of creating and the analysis stories.

Key word: Literature, Metaphor, Education and Therapy of Metaphoric Stories, *Die Verwandlung* by Franz Kafka, Father's Violence, Writing, Qualitative Study

임춘택
소속: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경남대학교
전화번호: 055-249-6328(연구실), 010-3228-1283
전자우편: fruehling@kyungnam.ac.kr

이 논문은 2015년 2월 4일 투고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5일 게재 확정함.